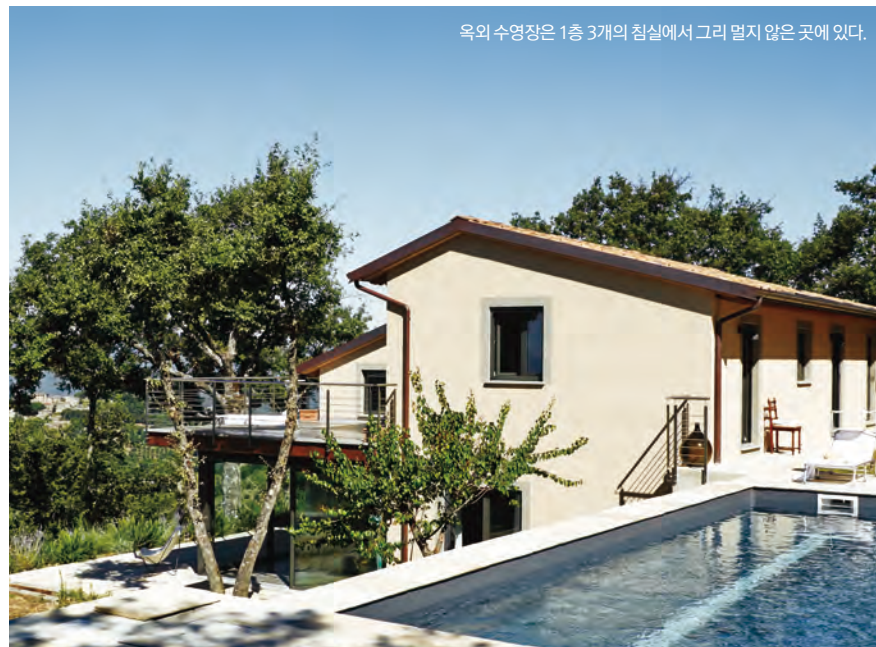


WELCOME TO VILLA G

덴마크의 추운 겨울이 찾아올 무렵, 리세와 크리스티안 가족은 이탈리아의 주말 별장으로 떠난다. 움브리아 산자락의 오크나무 숲에 자리한 '빌라 기안다이야'는 신선한 공기와 평화, 명상에 향한 가족들의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킨다. PHOTOGRAPHY BY KRISTIAN SEPTIMIUS KROGH(HOUSE OF PICTURES)



거실의 주요 가구는 빌라를 짓고 남은 나무들로 직접 제작했다. 패치워크 쿠션들은 미국 브랜드 크리스피나(Crispina)에서, 버터플라이 1인 체어는 까사숍(Casa Shop)에서 구입했다. 벽에 걸린 작품은 젠스 피터 헬리 한센(Jens Peter Hely Hansen)의 작품이다.



옥외 수영장은 1층 3개의 침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인테리어 디자인 저널리스트인 리세 셉티미우스 크로그(Lise Septimius Krogh)와 사진작가 크리스티안 셉티미우스 크로그(Kristian Septimus Krogh)는 일과 삶의 동반자다. 인테리어 디자인과 데커레이션, 사진 등 공통된 관심사와 열정을 지닌 두 사람은 덴마크를 비롯해 여러 도시에 머무르며 인테리어 매거진과 책에 실릴 기사 취재와 화보를 촬영해왔다. 새로운 책 기획과 맞물려 향하게 된 이탈리아에서 집을 짓게 된 것은 애초 계획에 없던 일이다. “우리는 우연히 움브리아로 가는 사진 여행에서 이 땅을 찾았어요. 좀처럼 볼 수 없던 풍경에 푹 빠지고 말았죠. 오랜 역사가 깃든 광활한 자연에 주말 별장을 짓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우린 로맨틱한 상상에 푹 빠졌죠.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토스카나와 경계를 이루는 움브리아 북쪽 지방의 해발 700m 암반사면에 위치한 1만 평에 달하는 오크나무 숲을 소유하고 있다. 이탈리아에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타국인에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게다가 그곳은 물과 도시가스도 공급되지 않는 땅이었다. 작은 방 두 개가 딸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양치기의 작은 집이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다. 거칠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그대로인 이곳은 EU 환경보호 조약인 ‘나투라(Natura) 2000’에 속한 특별한 곳이기도 했다. 땅을 사고 집을 계획하고 허가를 받는 데도 많은 족쇄가 따랐고, 그사이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다행히 그들은 외국인 대상으로 계약이나 여타 절차를 돕는 덴마크 사람들을 만났고, 영어가 가능한 건축가 마르코 카를리니가 주택 설계와 시공에 합류했다.

마르코와 집을 구상하는 동안 리세와 크리스티안은 오래된 석조 주택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탈리아의 집은 그림처럼 로맨틱하죠. 그런데 겨울이 되면 이런 집들은 차갑고 축축하고 어둡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르코는 새로운 시각으로 건축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죠. 완전히 새롭고 기능적인 건축물로요. 결과적으로 모더니즘이 중세를 만나게 된 거죠.” 크리스티안에 이어 리세가 덧붙였다. “처음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집을 상상했다고 할까요? 해외에 있는 별장이라니! 얼마나 로맨틱해요. 하지만 실제 집 짓는 과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건축가의 힘이 컸어요.”

“새 집에는 역사를 찾아볼 수 없잖아요. 집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주변의 모든 건축물이 중세 시대에서 비롯된 거라 처음엔 새 집 주위를 둘러보는 일이 낯설었어요.”



미니멀한 게스트룸. 리넨 스프레드는 틴 케이 홈(Tin K Home). 조명은 이케아, 가구는 중고 숭에서 구입했다.



수영장으로 이어지는 1층의 방. 플러어 랩프는 필립 스타크 디자인이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구현하다

그들은 스칸디나비아 출신이다. 집에는 나무, 빛, 공기가 머물러야 한다. 220㎡ 규모에 1.5층 높이로 설계된 집은 높은 문과 창문이 특징인 프리즈(Frieze)를 갖추고 있다. 집의 정면은 이 지역에서 가장 특징적인 자작나무 숲과 어우러지는 자연의 색조를 입힌 석고로 마감했다. 집은 친환경 목재를 중심으로 30cm의 단열 외벽이 둘러싸고 있고, 높은 천장과 자연을 들이는 창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상당 부분 창으로 빛을 들이는 천장은 하얗게 칠한 나무로 제작되었고 온돌식 마루는 회색 타일로 마감했다. 커다란 문들은 관리가 필요 없는 알루미늄 프레임에 에너지 절약형 유리를 끼워 제작했다. 이쯤 되면 눈치챌 수 있듯, 이들은 자연의 힘을 빌려 친환경적으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집을 설계하면서 그들이 주목한 것은 ‘지속가능한 디자인’이다.

게스트룸의 욕실. 의자와 그림은 중고 숭에서 구입했고, 타월걸이는 이케아 제품이다.



인’이다. 빌라 G에는 물의 순환을 위해 땅을 115m나 파서 만든 우물도 있다. 빗물은 각각 분리된 탱크에 모여 화장실 물로 사용되고, 지붕의 태양열 패널은 집안의 샤워기뿐 아니라 풀장 옆 야외 샤워기에서 따뜻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돕는다. 기능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활용한 부분도 있다. 바로 라운지다. 1층의 전망 좋은 라운지는 커다란 미닫이문이 있는 두 개의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미닫이문을 전부 열면 천장이 있는 테라스로 변신한다. 그런 상태에서는 테라스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실내 열효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탈리아의 많은 집이 그렇듯, 에너지 효율이 1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집을 지으려고 노력했어도, 이토록 모던하고 기능적으로 완성된 집은 이탈리아 스타일의 석조 주택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 외부와 내부 모두, 모던 이탈리아 건축과 스칸디나비아의 미니멀하고 모던한 디자인 터치가 있어서다. “새 집에는 역사를 찾아볼 수 없잖아요. 집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주변의 모든 건축물이 중세 시대에서 비롯된 거라 처음엔 새 집 주위를 둘러보는 일이 낯설었어요.” 가족들은 이탈리아로 유럽 조류의 일종인 ‘언치’를 지칭하는 이름을 붙였다. 바로 ‘빌라 기안다아(Ghiandaia)’다. 그들은 짧게 ‘빌라 G’로 부르고 있다.



DANISH TOUCH

집의 중심이 되는 다이닝룸. 6m 천장에 달아놓은 5개의 PH5 램프들은 집주인의 취향과 스타일링 방식을 엿볼 수 있다. 거친 텍스처의 테이블과 다양한 모양의 의자가 모여 오래된 듯하면서도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SPACE COZY

주말 별장답게 아담한 크기에 마련된 주방은 블랙과 오프 화이트, 스테인리스스틸 등으로
모던하게 완성되었다. 덴마크 로아르 리케네트(Roar KØkkenet)가 전체 디자인을 맡았다.





커다란 오크나무가 우거진 라운지의 테라스.



움브리아의 무더운 여름 온도는 해수풀이 조절해준다.



로즈메리와 라벤더로 둘러싸인 야외 식탁. 커다란 와인 배럴은 프랑스에서 공수했다.

“이곳에서 변화하는 계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에요. 이탈리아의 안개도 신비롭죠. 우리에게 조용하게 다가와, 이탈리아가 수평선 저 너머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주죠.”

빌라 G의 내부는 매우 사적이고 차분하다. 미니멀한 공간에 톤 다운된 컬러 오브제와 내추럴한 소재가 모던한 스타일을 연출한다. 평평한 표면과 거친 표면 사이에서 서로 대조되거나 호환될 수 있는 여지를 적극 활용했다. “거의 모든 가구를 덴마크에서 가져왔어요. 우리 집을 짓는 몇 년 동안 가구와 소품들을 모았죠. 각각의 공간에 어떻게 놓을지 상상하면서요. 오래된 가구와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좋아해요. 빈티지와 모던함을 섞는 것도 재밌죠.” 이들과의 디자인 해법을 엿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식사용 테이블 위에 걸린 램프에서다. 상들리에처럼 걸어놓은 ‘PH5 램프’는 1958년 덴마크 디자이너 폴 헤닝센의 디자인이다. 천장 높이가 6m에 달하는 다이닝 공간이 집 한가운테를 차지하고 있으니 PH5 램프는 이 집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한다.

집에 놓인 의자들도 각기 다양한 스토리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가구와 소품들은 길에서 찾은 중고들이고, 나머지는 벼룩시장에서 구입해 새로운 디자인을 결합시킨 것이다. 흑백사진 예술, 오래된 18세기 오크 서랍장, 모던 이탈리아 램프들과 숲에서 가져온 오크나무 그루터기는 그중 하나인데, 인테리어 디

자인에서 독특한 시선과 함께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인상을 준다. 인테리어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색의 범위도 엄격하고 미니멀해 모두 블랙, 그레이, 화이트 그리고 자연의 색깔들로 유지되고 있다.

“차로 2시간 반 거리에 해변이 있어요. 이곳은 여름에 무척 더워요. 태양을 피할 그늘진 공간이 많지만, 우리 이른 아침부터 저물녘까지 해를 피하지 않죠. 열을 식힐 수 있는 해수풀이 이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풀장은 진한 회색 바닥으로 되어 있어 주변 풍경과 아름답게 어우러진다. 마치 숲속 호수를 떠올리게 한다. 빌라와 멀리 떨어져 땅의 꼭대기에 있으며 계단과 테라스가 지형에 맞춰 설계된 여러 층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탈리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인 트라시메노 호와 중세 마을들 그리고 연한 초록빛 언덕과 푸른 산들이 보이는 180도 전망을 제공한다. “이곳에서 변화하는 계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에요. 이탈리아의 안개도 신비롭죠. 우리에게 조용하게 다가와, 이탈리아가 수평선 저 너머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주죠.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요.” ◆